

주간기도정보

2025. 8. 5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잊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리라”

2025 선교한국대회 개막 ‘세상의 희망 예수’

4-7일 서울 서초 사랑의교회서 청년, 대학생들의 영적 각성 및 동원



기독 청년·대학생들의 영적 각성과 타문화권 선교 헌신 및 동원을 위한 제19회 2025 선교한국대회가 4일 서울 서초 사랑의교회에서 개막했다. ‘세상의 희망 예수’(롬 15:12)라는 주제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대회 첫날 오후에는 국내외에서 2천여 명의 기독 청년·대학생, 학생선교단체 및 파송선교단체, 교회 리더십과 선교사 등이 현장에 참석했다.

개회예배에서 선교한국 최용 사무총장은 “선교한국은 여러분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다만 가난한 마음으로 세상의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발견 하길 기도하라고 권하고 싶다”며 “이번 대회는 나의 희망 예수, 교회의 희망 예수, 민족과 열방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종부 목사는 롬 1:16-17 말씀으로, 복음은 누구든지 자격이나 조건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이 진리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위험도 있지만, 바울처럼 복음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에게 복음이 삶의 기쁨이 되도록 기도하자고 권면했다.

글로벌 미션 트렌드(GMT, Global Mission Trends) 섹션에서 문창선 선교사는 “오늘날 선교는 서구 중심에서 벗어나 남반구 중심, 다중심·전방향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한국교회와 청년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첫날 저녁 메시지를 전한 김선교 선교사는 요한복음 21:15-17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믿음이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한계, 그 끝에 오직 주님만 믿는 사람들이었다. 도무지 자격도 없고 면목도 없지만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신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나니”를 힘주어 외치며 다함께 뜨겁게 기도했다.

제19회 선교한국대회 준비위원회 최달호 간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여러분은 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권을 경험할 것”이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가득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묵은 불안과 염려에서 해방될 것이고, 마침내 복음 안에서 새로운 판을 짜고 이전에 몰랐던 혼신의 기쁨으로 가슴이 요동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선교한국은 원래 그런 곳”이라고 전했다.

선교한국은 지난 37년간 총 18차례 선교한국대회를 개최하여, 연인원 66,000여 명이 참석했고, 이 중 36,000여 명이 선교 혼신을 결단했다. 현재 선교한국은 11개 학생선교단체, 26개 파송선교단체, 10개 지역교회가 함께하고 있다(출처: 선교신문, 기도24365본부 종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에베소서 1:17-19)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출애굽기 33:11)

하나님, 한국교회의 열매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는 ‘2025 선교한국’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회의 모든 시간 성령께서 참가자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영광스러운 성도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열방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원한 영광을 위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며 회막을 떠나지 않던 여호수아처럼 주님을 앙모하는 구별된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온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다시오실 주님을 예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소학교 학생들이 쓴 폭풍군단 위문편지에 “자폭영웅 되겠다”

덕천시 내 소학교들, 전승절 계기 일제히 편지쓰기 행사 진행…특정 문구 담도록 강요해 세뇌



북한 평안남도 덕천시의 소학교(초등학교)들에서 이른바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7월 27일)을 맞아 군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행사가 일제히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편지에 ‘자폭영웅이 되겠다’는 표현을 담게 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데일리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덕천시 당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덕천시 내 소학교들에서는 7월 24일부터 이틀간 2-5학년(8-11세) 학생들이 참여하는 편지쓰기 행사가 진행됐다. 북한은 올해 7월 27일을 ‘반제 승리의 상징적인 날’로 내세우며 러시아에 파병된 11군단(폭풍군단)의 전투 성과를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의미를 재구성했다고 한다.

이에 덕천시당은 덕천시를 주둔지로 하고 있는 인민군 제11군단 군인들에 대한 편지 쓰기 행사를 기획·지시한 것이라는 전언이다. 실제 덕천시 내 소학교 학생들이 쓴 편지는 각 학교와 시당의 검토를 거쳐 전승절 당일 원호물자와 함께 11군단 정치부에 전달됐다.

이번 편지쓰기 행사는 우선 편지의 명칭이 기존의 ‘위문편지’에서 ‘축하편지’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시당이 사전에 제시한 문구를 핵심적으로 담게 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별화됐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11군단 군인들에게 보낼 편지의 형식은 기본 인사말, 편지를 쓴 이유, 축하의 말, 개인적인 바람과 결의 등으로 구성됐다”며 “그리고 ‘나도 커서 원수님(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결사옹위하는 자폭영웅이 되겠다’는 다짐의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명령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나 생각이 아닌 특정 메시지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정치적 세뇌를 가한 것이다.

이밖에도 아이들은 ‘로씨야(러시아)전쟁에서 싸우는 11군단 인민군대 아저씨들이 긍지스럽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인민군대 아저씨들처럼 우리도 최우등의 자랑을 떨치겠다’는 등의 문장을 편지에 적을 것을 요구받았는데, 이는 파병이 정당하고 의로운 일이었다는 점을 10대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편지 쓰기 행사가 학생들의 단순한 문예 활동이 아니라 사상 통제의 도구로 활용된 셈이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폭영웅’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10대 어린 소학교 시절부터 조국을 지키는 자폭영웅이 되는 것을 긍지로 여기도록 교양하는 것이 당에 대한 충실성 교양”이라고 포장하며 어린아이들에 대한 사상 교육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축하 편지 쓰기 행사와 맞물려 진행된 전승절 기념 소학교 아이들의 축하 공연에서도 ‘자폭영웅이 돼 백두혈통을 결사옹위 하겠다’는 구호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고 전했다(출처: 데일리NK 종합).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골로새서 3:9-10)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맷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히브리서 8:10)

하나님, 김정은 정권의 불의함을 감추고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정치적 세뇌와 사상 통제로 체재를 유지하려는 모든 악한 일들을 헛되게 하사 북한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불의의 병기로 내몰린 이 땅의 다음세대를 궁휼히 여기사 우릴 창조하신 주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들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세뇌에 의한 절못된 충성이 아닌, 진리와 주의 영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랑과 진정으로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의의 병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려오는 소식은 북한 주민들의 신음이지만 십자가로 맷으신 주님의 언약과 선하심을 더욱 신뢰합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로 북한을 덮으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름방학 신양캠프, 한국교회 다음세대가 뜨겁게 타오르다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 부흥



올여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천 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다음세대의 외침은,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로 다시 피어오르고 있다.

7월 22일,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는 ‘세상을 이끌어갈 우리들’을 주제로 제2회 MTU 청소년 캠프가 열렸다. 지난해 400여 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000여 명이 참가했다. 찬양이 울려 퍼지자 학생들은 두 손을 들고 “alleluia”, “아멘!”을 외치며 마음껏 예배했다.

입시를 앞두고 혼자 참석한 고3 염원 군은 “부모님 권유로 왔지만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 감사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예닮교회 김범(15) 군은 “찬양과 말씀을 들으며 큰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다. 앞으로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고백했다.

7월 28일부터는 경기도 수원과학대 신텍스에서 제2회 중·고·청년 대학부 성령 콘퍼런스가 세계로금란교회(주성민 목사) 주최로 이틀 간격 두 차례에 걸쳐 열렸다. 회차별 2,000명씩 총 4,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국 300여 교회가 함께했다.

주성민 목사는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것은 성령운동 때문”이라며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성령을 받고 꿈과 비전을 가지면 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목사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가 길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자”고 강하게 도전했다.

한 참가자는 “찬양할 때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의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라고 고백했다. 준비위원장 나성민 장로는 “차세대 리더를 세우자는 목사님의 비전에 감동받아 300여 명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젊은이들을 섬기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2025 세계로 한다련 여름캠프’가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열려 전국 중·고등부와 청년 3,5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리스도인이여! 세상 앞에 당당하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서는 손현보 목사를 비롯한 여러 말씀 강사와 전문가들이 신앙과 사회, 문화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다.

매일 저녁 진행된 기도회에서는 수백 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단상 앞으로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다. 한국다음세대훈련원은 이번 캠프를 통해 다음세대들이 흔들리지 않는 기독교 정체성을 확립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다음세대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여름, 하나님을 갈망한 다음세대의 입술에서 쏟아진 고백은 한결같았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부흥은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는 지금, 기도하며 예배하는 다음세대가 서 있다(출처: 국민일보, 데일리굿뉴스,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시편 145:1-2)

이는 너희가 흄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흄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빌립보서 2:15-16)

하나님, 이 여름 전국 각지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방학 중 열린 신앙캠프를 통해 세상의 유혹과 혼란한 문화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기도 결단한 다음세대들을 축복하사 저들의 심령 위에 생명의 말씀을 환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리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며 십자가의 길로 전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결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불들어 흄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